

# 1st 환자안전소식

The Korean Society for Patient Safety News Letter

2020.09.



- 1  
발간사
- 2  
환자안전 이슈
- 3  
환자안전 연구동향
- 4  
대한환자안전학회 소식

대한환자안전학회



## “ 의료인 안전을 보장하여 코로나19를 극복 합시다 ”

### 염호기

대한환자안전학회 회장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대한환자안전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차게 시작된 2020년 초부터 시작된 COVID-19 감염 대유행으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진료의 최 일선에서 수고해주신 덕분에 대유행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와 의심환자 그리고 기존의 질병이 혼재되는 어려운 환경에서 진료는 분명히 이전과 다른 진료 체계와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환자를 보더라도 품은 2배 3배로 늘어나 의료진의 감염 걱정에 더하여 의료진의 업무 소진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료과정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진의 안전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17일은 '세계 환자안전의 날'입니다. 특히 올해의 슬로건은 '의료인 안전' 이라고 합니다. COVID-19 감염의 세계 대유행을 맞이한 지금 적절한 주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COVID-19 감염이 통제되지 않은 국가일수록 의료진 감염율이 높습니다. 의료진이 감염된다는 것은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염 전파를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인 안전은 단순히 의료인 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안전으로 직결되고 사회에서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환자안전학회 회원 여러분, 학회는 올해 여러 가지 학술대회 및 심포지움을 야심차게 계획 하였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 여러분들에게 환자안전에 대한 최신 지식과 유행에 대하여 알리는 뉴스레터를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환자안전학회 뉴스레터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많은 의견개진과 개별 의료기관 및 유관 기관의 소식을 접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더불어 상상을 초월하는 기후 변화를 겪고 있는 요즘 안전과 기본에 충실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한 삶이 있는 2020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 코로나19와 환자안전 : 바뀌어야 할 것과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은?

김소윤 연세의대 인문사회이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와중에 어느덧 한 학기가 지나고 있다. 이번 학기는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였고, 여러 회의나 학술대회 등도 비대면으로 진행된 것이 많았다. 진료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의료기관 감염 관리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리라 생각된다.

환자안전 분야에서 의료기관 감염은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MERS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 분야는 의료인의 재감염 방지를 위한 시설, 의료기관의 환기시설, 환자간의 거리두기, 보호자와 간병인의 간병문제, 문병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그 이후 많은 부분이 보완되기는 했어도 아직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보호 장비 비축 문제가 초반에 제기되기는 했어도, 의료인들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보호 장비가 부족한 선진국의 한 나라에서는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진료현장을 떠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하였다.

의료기관은 환자 뿐 아니라 의료인에게도 감염의 우려에서 완전히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없다. 가급적 의료기관의 방문을 적게 하는 것이 적어도 감염 부분에서는 환자에게 유리하고, 특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더욱 그럴 수 밖에 없다. 앞으로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가급적 직접 방문을 줄이는 것이 감염으로부터는 안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이번 사태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진료 방식의 변화와 함께, 의약품의 유통과 판매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원격의료를 통해서 진료를 하는 것이 보편화 된다면,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국 또는 제약회사를 통해서 환자의 집으로 직접 배달되는 시스템이 더욱 활성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술적으로는 이미 2000년 초에 가능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활성화 되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야 할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해서 절대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국 바뀌어야 할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지를 찾아서 변화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결국 모두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환자안전 연구동향

박정운 울산대 임상전문간호학 교수

1999년 미국 의학한림원에서 발간한 ‘사람은 누구나 잘 못할 수 있다: 보다 안전한 의료 시스템 구축’ 보고서를 기점으로 환자안전이 보건의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연구조사가 시작되었다.<sup>1)</sup> 국내에서도 2010년 백혈병 치료를 받던 환아가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사건에서 2015년 환자안전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었으며, 제 7조에 따라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제 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은 2018년 부터 2022년까지이며, 환자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환자안전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한 지표 개발과 성과관리체계 구축, 환자안전 역량 강화, 환자안전 R&D 투자 확대, 환자안전문화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2)</sup>

환자안전연구는 안전한 병원을 구축하고, 의료오류와 위해사건 발생을 예방하며, 환자안전을 위해 병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환자안전연구의 첫 번째 단계는 환자안전 문제를 확인하는 것으로 위해(Harm)를 측정하기 위해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낙상이나 투약오류 등 환자 문제에 대한 정의는 문헌마다 기관마다 다르며, 사례분석이나 의료과오 소송분석, 오류 보고 시스템, 행정자료 혹은 의무기록 감사를 활용한 연구는 사후해석편향(hindsight bias) 및 보고편향 가능성이 불안전하고 부정확한 자료에 의존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sup>3)</sup> 문제의 규모와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자료와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다음은 환자안전 문제의 원인을 찾는 연구로 단면연구나 전향적 코호트 연구가 활용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다양한 방법의 임상 시험이

나 중재 연구를 활용하여 환자안전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연구이며, 현장 적용을 통해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최근 국내 환자안전 연구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안전 관련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왔다. 2015년 수행된 국내의 환자안전 연구의 우선순위 결과에서 ‘의사소통 및 연계 결여’, ‘환자안전 문화 결여 및 문책 과정’, ‘적절한 안전지표 개발’ 순으로 나타났다.<sup>4)</sup> 그러나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환자안전 연구현황을 파악한 결과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상태였으며, 1~3순위의 연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의료정보기술이나 의료정보체계와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현재 환자안전 사건의 규모를 파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나 제2의 피해자 지원 등 환자안전사건 발생후 대응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환자안전사건보고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 변화로 환자안전사건 보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예방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임상현장에서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와 보호자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어 이들의 참여방안과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자안전문화 수준 측정,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안, 및 환자안전사건 보고시스템 개선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의 환자안전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갖춘 환자안전전문가 육성과 재원 확보를 포함한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1) 서재희, 송은솔, 최성은, 우경숙.(2016). 환자안전에 대한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보고서, 1-211.

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018). 보도자료. 환자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첫발 내딛다!.

[cited 2020 June 22]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4664](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4664)

3) 이상일, 옥민수.(2014). 환자안전 관리의 현황과 개선 방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책동향, 8(5), 5-15.

4) 김수경, 이상일, 이진이, 박정수, 강신희, 고은비, 최솔지, 조애정.(2016). 환자안전체계 구축 기반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보고서, 1-145.

5) 이원, 최지은, 장승경, 표지희, 옥민수, 이상일.(2018). 정부 지원 환자안전 연구의 타당성 검토.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6(1), 57-70.



## 1. 제 11차 정기학술대회

- 일시 2020.09.16.(수) 09:00~
- 장소 온라인학술대회
- 주제 보건의료인의 안전과 환자안전

## 2. 월별 환자안전세미나

### 1) 10월 환자안전세미나

- 일시 : 2020.10.28.(수) 18:30~
- 장소 : 미정
- 발표 : 진료와 환자안전  
송진영(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QPS팀장)

### 2) 11월 환자안전세미나

- 일시 : 2020.11.25.(수) 18:30~
- 장소 : 미정
- 발표 : 진료부문에서의 환자안전: 진정·마취를 중심으로  
조수영(이화의대부속목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 3. 2020년 환자안전 전담자 보수교육

- COVID-19 확산방지 및 예방대책으로 대면교육을 비대면(온라인)으로 대체진행됩니다.
- 상세일정 및 신청은 대한병원협회 온라인교육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자안전소식 제 1호

E-mail ksps2013@gmail.com <http://www.patientsafety.kr>

발행인 엄호기

발행처 대한환자안전학회

디자인 편집 나루기획